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3D DIGITAL 가상과 현실을 잇는 에어포리아섬

나이키, 포트나이트에서 뉴디지털 월드 ‘Airphoria’ 공개

포트나이트에서 에어포리아를 경험하고 숨겨진 에어맥스 성배를 되찾으세요!

나이키가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새로운 디지털 월드 ‘에어포리아(Airphoria)’ 섬을 공개했다. 도시 전체를 Air Max를 주제로 완성한 것으로 Air Max97을 형상화한 Station97, 나이키 슈즈 박스 형태의 신발 상자 타워, Museum Max 등 도시 명소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도시를 탐험하며 잃어버린 에어맥스 성배를 찾는 것이 게임의 관건.

에어포리아 섬의 핵심은 가상과 현실 모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패션 협업이라는 점이다. 포트나이트에서는 에어리(Airie), 맥시멀리스트 맥스 의상(Maxxed Out Max) 두가지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판매하며 퓨어솔 붐박스와 맥스 스택 장신구도 포함되어 있다. 또 곡괭이, 클라이더, 감정 표현, 로딩 화면 등을 결합해 판매한다. 나이키 현실 매장에서는 협업을 기념해 ‘Airphoria’ 한정 컬렉션을 출시했다. 티셔츠와 롱셔츠 등으로 구성됐다.

TEXTILE

EU, 2028년까지 섬유 폐기물 규정 준비 요구⁽¹⁾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패션 회사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계획된 규정이 2028년까지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의 최대 패스트 패션 회사이자 국내 섬유 기업인 주 바이어인 인디텍스와 H&M 등도 포함된 이야기이다. 위원회는 패션회사가 생산하는 의류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최소 16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패션회사들은 생산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양의 섬유 폐기물을 수거

하거나 지방 당국의 폐기물 수거 작업에 수수료 지불, 2030년까지 패션 회사들이 재사용 가능하고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내구성인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가 의류를 광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U 정부는 지난 5월 재사용과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EU의 녹색 전략의 일환으로 판매되지 않은 직물의 폐기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TEXTILE KATRI, 페트병 재생폴리에스터 국내산 인증 서비스 제공⁽²⁾



‘이 페PET병은 국내산인가? 해외산인가?’ 페PET병에 대한 국내산 인증이 가능해졌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은 국내 PET병 재생폴리에스터 국내 1호 인증서를 효성티앤씨에 최초 발급했다. 카트리는 지난 4월 국내 PET병 재생폴리에스터 섬유 인증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PET병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작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3일 국내 1호 인증서를 효성티앤씨에게 발급했다. 카트리는 현장심사 과정으로 원료 공급업체인 페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방문, 원료의 분리 세척 분쇄 및 플레이크 제작 과정을 확인했다. 또 완성된 제품에 대해 KATRI의 재생폴리에스터 개별 시험을 진행해 PET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했고,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했다. 카트리는 효성티앤씨를 필두로 국내 PET병을 활용한 재생폴리에스터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폐자원 활용 및 친환경 섬유 소재 사용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통브라운 SS 컬렉션

FASHION

럭셔리 직진출, 독일까? 독일까?⁽³⁾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직진출로 방향을 선회한다. 지난 8년 동안 신세계인터내셔널과 국내 파트너십을 맺어 온 ‘골로에’가 7월부터 직진출로 변경, 리치몬트코리아가 직접 운영한다. 기존 ‘골로에’ 백화점 매장은 리치몬트코리아에서 양수해 관리한다. 또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효자 브랜드 ‘통브라운’도 7월부터 한국법인 통브라운코리아가 설립, 직진출 형태로 변경된다. 다만 삼성물산 패션과는 리테일 매니지먼트 계약

을 체결해 백화점 입점, 고객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맡긴다. 미국 디자이너 브랜드 ‘CK캘빈클라인’은 10여년 만에 한국 전가사인 한섬과 국내 판권 계약을 종료하고 내년 가을부터 직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면서 판매도를 높이고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직진출을 선택하고 있는데, 전개사 교체에 따른 초기 불안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D DIGITAL

산업부, 국내 최초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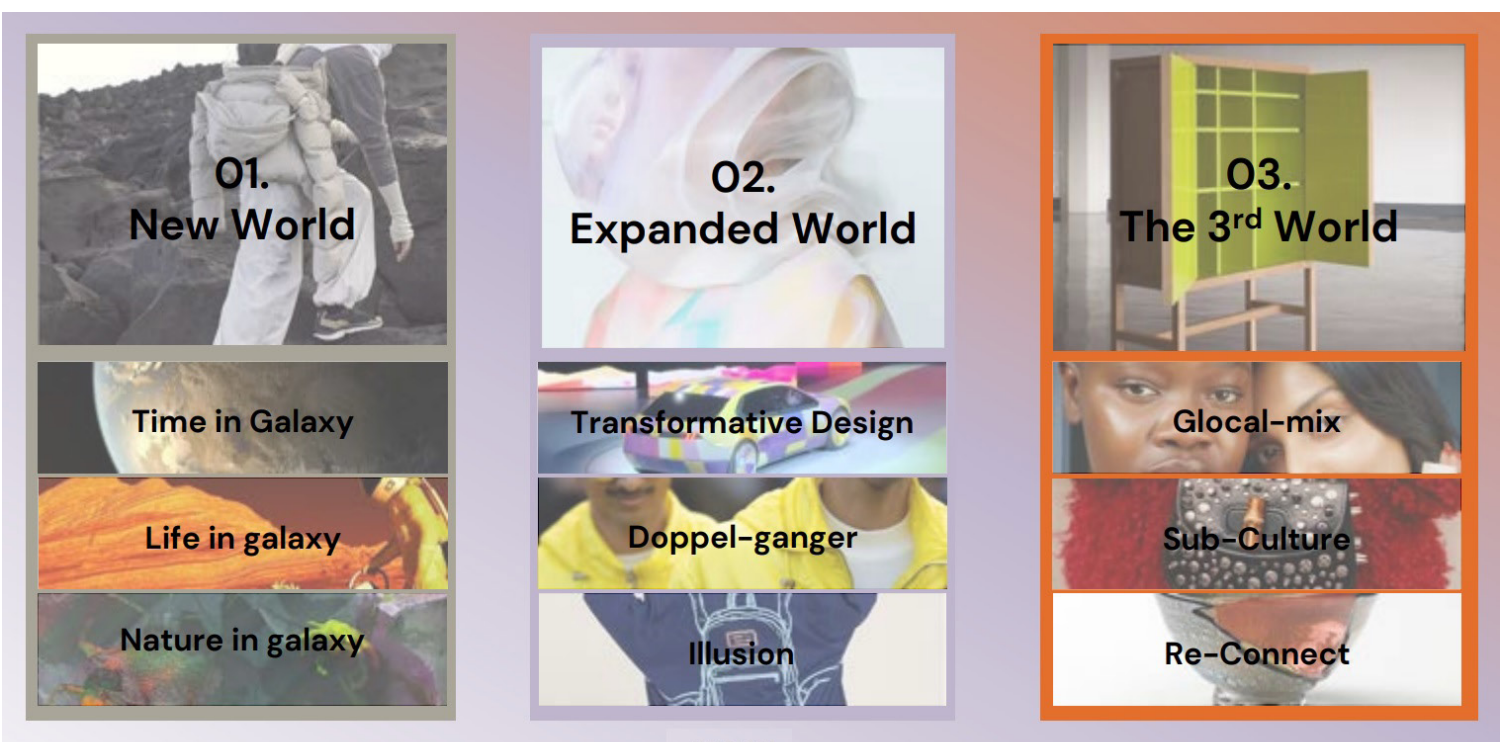
디지털 창작자를 지원하고 메타패션을 경험할 수 있는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가 오픈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30일 서울 DDP패션몰에 메타패션 체험 및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메타패션 플레이그라운드’를 오픈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곳은 체험존과 창작존으로 구성되는데 체험존에는 디지털패션 창작물을 전시하고, 메타패션을 증강현실로 가상착장에 볼 수 있는 촬영존, 가상스토어에서 가상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패션

메타버스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작존에는 고성능 PC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5종이 설치되어 있어 패션 디자이너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섬유패션이 제조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나 콘텐츠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메타패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R 기술로 가상 착장을 체험하고 있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FASHION WGSN, 제3의 신세계가 온다⁽⁴⁾



WGSN

글로벌 트렌드 정보사 WGSN이 2024년 MEGA TREND를 발표했다.

글로벌 트렌드 정보사 WGSN이 2024년 라이프스타일 & 디자인 메가 트렌드로 ‘New’, ‘Expanded’, ‘The 3rd World’를 제안했다. WGSN은 불확실성, 복잡성, 압박감 등 디지털 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위기’ 시대에서는 ‘다원적인 접근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각 카테고리별로 △사회 - 다중위기의 시대 △테크 - 탈중앙화 세상 △환경-결정전자 자연 △정치 - 대이동 △산

업 - 우주시대와 신소재 △창조 - AI 창작 등 다가를 변화의 흐름을 예측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2024년 디자인 메가 트렌드로 ▲New World ▲Expanded World ▲The 3rd World 3개의 키워드를 제안했다.

▲New World : 우주시대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새로운 우주 감성을 창조하는 제품이 등장하고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를 적극 활용

▲Expanded World : AI 기술 발달로 현실과 가상 세계가 연결된 만큼 디지털 삶과 물리적인 삶 이중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발달함

▲The 3rd World : 비주류가 메인인 되는 제3세계가 도래해 틈새문화가 더욱 부상하고 있고, 진정성있는 로컬 협업, 비주류 요소와의 연함이 중요

기사출처

- (1) 어패럴리뷰스 - EU Wants ALL textile waste rules in place by 2028, 2023년 6월 28일
- (2) BOF - EU Wants ALL textile waste regulations read by 2028, 2023년 6월 27일
- (3) 한국섬유신문 - KATRI, 페트병 재생폴리에스터 섬유 인증 서비스 제공, 2023년 6월 26일
- (4) 아이뉴스24 - “한국서 가능성 봤다” 명품 브랜드 ‘직진출’, 2023년 6월 28일
- (5) 디토멘티토 - WGSN, 제3의 신세계가 온다, 2023년 6월 25일



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센터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